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5월 14일 (제1201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컬럼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한 때 자서전을 쓰다가 도중에 접었다. 쓰다 보니 자꾸 나를, 당시의 일들을 미화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실감 나게, 조금 더 멋지게 쓰려다 보니 부작용이 난 것이다. 여하튼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에 나는 결심했다. 자서전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참회록이나 남기고 가자고.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마치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 말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고, 조금씩 부풀려진다. 그 간증으로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 호된 꾸지람을 듣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으로라”(고전9:27)라고 고백한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또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갈3:5)라고 말했다. 사람과의 언약도 늘렸다 줄였다 하면 이미 약속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어디 사람과의 약속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빼거나 그 대가는 실로 엄청나다. “발락이 그 집에 은, 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찌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떨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민22:18). 이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청했을 때 그가 잠시 물욕에 끌려갔다가 타고 가던 나귀의 책망을 받은 후 깨닫고 한 말이다. 계시록을 쓴 요한도 받은 완전한 본서의 예언을 변질시키기 위해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 내릴 심판의 엄중함을 경고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22:18~19).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유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에. 본 대로, 받은 대로, 들은 대로 말하라. 그것이 진실이다. 그래야 당당하고 떳떳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명확한 자기 인식과 뚜렷한 목표지향점을 가진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항상 더 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잘한 인생사에 휘둘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바, ‘너는 나의 자녀이니 세상 앞에 담대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오래 참지 못하고 쉽사리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목사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너의 신분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번 춘

분,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다. 바로 그 하나님이 ‘너는 내것이다’라고 선포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모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어떤 정체성과 목표지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한 근거가 되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르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각자에게 말

포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온 순간, 이제 더 이상 한국의 일들일랑 생각하지 말고, 미국 시민으로, 일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발은 미국 땅, 일본 땅에 두고 있으면서도 생각은 여전히 한국인으로, 한국 기준에 사로잡혀 있으니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강하고 담대하게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까지 찾아왔는데, 여전히 북한사람으로, 북한의 기준으로 살아가간다면 결국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도, 성



2023 춘계산상집회(5월 1일~4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계산상집회를 통해서도 목사님은 이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남의 것 탐하지 말고 너의 것을 찾아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찾아라’, 3일간의 설교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는 결국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였기에 이제 우리는 사람의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1:12~13). 하나님이 누구인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온 우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거진 사명을 다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뚜렷한 목표이다. 목사님은 오후 상담시간을 다시 할애하시고 특별히 이번에 참석한 50여 명의 탈북회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떠나온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있고, 여전히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많겠지만, 아닙니다. 이제 강을 건넌으니 뗏목은 불살라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변화하기 싫으면 현실에 만족하고 사세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공이야기를 써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미국이나 일본에 갔을 때 교

공적인 삶을 살아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신분, 곧 천국시민이 되었으면 이전의 세상적인 생각이나 기준은 다 버려야 마땅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시민으로서 마땅한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탈북회원들뿐일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동일하게 가져야 할 자세이다.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인식하여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이라는 명확한 자기 인식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마땅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잊지 말자.

한은택 목사

이초석 목사 대구 엑스코 집회

6월 6일 오후 3시 (대구 엑스코 동관 4홀)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호6:1~3)

두려움이란 모르는 데서 오는 고질병이다

길을 가다 외국인을 만나면 슬그머니 피하게 됩니다. 행여 길이라도 물을까 봐서요. 어쩌다 해외여행이라도 가면 공항에서부터 살짝 두렵습니다. 영어로 뭘 물어볼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영어 공포를 떨치는 길은 영어를 배우는 겁니다. 배우면 외국인을 만나도, 외국에 나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결국 배우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게으름에서 비롯된 고질병입니다. 부지런히 수영을 배우면 물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자동차 정비를 배우면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알면 두려울 게 없고, 아는 자는 자유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누리게 됩니다.

두려움은 삶의 암적 존재다

그렇다면 인생살이가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호6:3).

이제라도 게으름을 떨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5:39).

또한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전2:1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얻는 길은 부지런히,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살전5:17).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소멸되면 하나님을 알레야 알 수가 없고, 그러면 모든 것이 두렵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신 분이요(창1:1),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창2:7),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눅18:27).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요(요1:12~13).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멀리 서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간혹 깜빡깜빡 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딜 가든지 늘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딱 정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막막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다. 그는 하나님이 늘 자기와 함께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창15:1).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러자 그랄 목자들이 자기네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럴 때면 이삭은 다투지 않고 다른 우물을 뚫고, 거기서도 물이 펴펴 나왔습니다.

이삭이 수맥을 잘 찾아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창26:24).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형을 피해 외가로 도망칩니다. 도망길에 벵엘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려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찌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창28:15). 그가 금의환향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형통했고, 노예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창39:23).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그는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의 선전들과 함께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느브갓네살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회유하는 느부갓네살에게 아주 멋진 말을 남깁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단3:17).

그들은 능히 불 가운데서 건져

내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았기에 평소보다 칠 배

가 뜨거운 풀무불 따위는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불 가운데 함께하사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증거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네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단3:25).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사43:1~3).

우리가 불 가운데를 지나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가 물에 빠져도 하나님이 물을 갈라 길처럼 걷게 하시고, 우리

가 사자굴에 빠져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사 편히 잠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내 자식을 건드리는 자를 가만 놔두지 않을 텐데,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것, 당신의 자녀를 건드리는 자를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와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신32:9~10).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던 느헤미야가 도비야와 산발랴이 훼방하고 협박해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기드온의 300명 용사로 폐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사를 다 쳐부술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두려움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는 고질병입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던 열 명은 하나님을 잘 몰랐기에 자신들을 폐뚜기에 비유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믿었기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민14:9)고 외친 것입니다.

두려움은 무지의 산물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수1:5~6).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41:10).

그러므로 이제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히13:6).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사12:2).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기업의 가치 평가는?

워렌 버핏이 어떻게 한 기업의 실제 가치를 평가했는지 몇 차례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자산은 장기적인 수익성과 보유 시 위험이 반영된 고유의 내재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업의 내재가치는 금리, 원화 가치, 이익과 매출, 부채 수준, 경기 등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수시로 변합니다. 투자자는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가치를 합리적으로 분석해야 하지요.

기업가치 평가가 옳은지 그른지는 투자자가 세우는 가정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인데 모든 관련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사려는 주식이 그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지요. 기업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이왕이면 오차를 좁힘으로써 주식가치를 과대평가할 확률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은 사실 20세기 와서야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위한 기업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투자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쉽사리 얻을 수 없었지요. 존 버 윌리엄스는 ‘기업가치는 기업이 존속하는 동안 벌어들이는 이익을 추산한 후 인플레이션과 돈의 시간가치를 이익에 반영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기업가치 평가를 위해, “투자자는 자신을 소유주로 생각하고 그 회사를 평가해야 한다. 기업의 잠재적인 미래이익을 추산해야 한다. 미래이익이 일정할 것인지, 들쭉날쭉할 것인지 예측해야 한다. 돈의 시간

가치에 따라 미래이익의 가치를 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윌리엄스는 주가보다 이익에 바탕을 두고 기업가치를 평가했을까요? 이익이란 유형자산으로 기업의 소유주는 연말에 이익을 배당할 수도 있고, 적당한 곳에 재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가는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보다는 기업가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변화를 반영할 뿐이지요. 주가에 대한 인식은 두려움, 과욕, 오보, 공황, 수요공급의 불균형 등으로 크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기업소유주(주주)가 얼마의 이익을 챙겨갈 수 있느냐에 따라 기업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핏의 스승인 그레이엄도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주가를 기업가치에 빚대어 본 후 그 가치가 적절한지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는 이익을 목표로 투자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주가가 아니라 매년 자신에게 얼마의 이익으로 돌아오느냐로 기업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주식의 시장가격은 단순히 그 회사가 과소평가 되었는지, 적절한지 또는 과대평가 되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될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원 세계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예배의 가치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지요. 예수 이름의 가치, 예배의 가치를 아는 자를,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미경 권사

:: 신앙논객 ::

확정된 마음의 예배자

얼마 전, 서울 강남 학원가에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집중력 강화제로 속여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그것을 벌미로 협박하려 했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제는 마약이 우리 일상 가운데까지 깊숙이 침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약이 왜 무서운가 하면,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것이 없이는 금단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고 감각이 마비되는 일종의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마약처럼 ‘이거 없이는 못 살겠다’ 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감정의 우상’이다. 컨디션 좋고 기분 내킬 때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안 좋은 일을 겪고 감정이 상하거나 마음이 불편하면, ‘나 지금 예배드릴 기분 아냐, 지금 찬송이 나와?’ 하는 것이다.

둘째는 ‘환경의 우상’이다. 온갖 영상/음향 시스템과 편안한 좌석, 여유로운 주차 공간, 가까운 거리 내지는 편리한 교통편 이어야지만 은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평소에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받고 축복받을 때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바쁘거나 일이 잘 안 풀

려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 셋째는 ‘관계의 우상’이다. 내가 좋아하고 친하고 대하기 편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만 은혜받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오는 게 망설여진다는 것이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들었을 때 지은 찬송시다. 자신이 섬기는 왕이자 장인이런인 사울을 비롯하여 함께 동고동락하던 병사들의 갈과 창에 쫓기는 상황에서,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필요한 어떤 조건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시57:7).

오늘 당신의 예배는 어떠한가. 마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중독자들처럼 감정과 환경과 관계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요동하고 무너지고 있진 않은가. 다윗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는 확정된 마음의 예배자가 되길 바란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 오늘의 메시지 ::

주께 드리는 믿음

총회장 목사님은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서울 교회를 짓겠다’고 말씀하셨다. 지금까지도 아낌없이 드리신 것을 우리가 아는데... “나는 세계 어디를 가나 부족함이 없다.”는 목사님의 당당함은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뤄진 것이리라.

성경에도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섬김을 교훈하신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이삭을 제단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베푼 칭함을 받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기 위해 드린 수많은 물품들이 쓰이고 넘쳐서 그만 가져오도록 명령을 내릴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했다(출36:5~7). 다윗은 성전 건축할 재료를 백성들과 함께 준

비하며 즐거움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고백한다(대상29:14).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가치의 향유를 예수께 부어 드림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함께 증거되었고(막14:3~9),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는 오천의 수가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를 거두는 기적을 이루었다(요6:9~13).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렸을까? 혹시 말라기서에 나오는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드리고도 다 드린 것이라 여기진 않는지.

참된 믿음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시인하며, 목숨까지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자.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9:7).

김상욱 목사



:: 내가 매일 기쁘게 ::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작년 11월, 서울 근교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남편의 직장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회사까지 셔틀버스가 시간마다 있었고 나의 직장까지도 30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이었다. 집 주변에 편의시설과 맛집, 카페도 많아서 뭐 하나 부족함 없는 아주 만족스러운 주거 환경이었다.

그런데, 1년도 채우지 못한 시점에 이사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에 가는 곳은 남편의 직장도 매우 근접한 곳이지만, 서울과는 최소 1시간 이상 떨어진 경기 외곽지역이다. 남편은 나의 장거리 출퇴근에 대한 걱정 때문에 기뻐하질 못하고 있다. 나 역시 남편에게는 무심한 듯 괜찮다고 말했지만, 왕복 3~4시간 출퇴근에 적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긴 하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앞날에 예비해놓으신 놀라운 축복의 사건들을 상상해보았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나의 믿음으로 인해 조금씩 가라앉았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다(창12:1~5). 오랜 시간 자신이 머물던 곳에서 누리

던 평안함, 친지들과 함께 나누었던 화목함을 모두 뒤로하고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떠났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못별처럼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다. 약속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절실한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지금 나에게 이사는 새 직장을 구하는데 복병이 되고, 잦은 이사로 불편한 지출이 많아져서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일이다. 무엇보다 지금 사는 이곳을 떠나는 것이 너무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사한 뒤의 일상을 그려보며 이사 날짜가 확정되길 기도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가나안으로 향했던 것처럼, 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준비를 해야겠다. 인간적인 생각과 불안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흔들고 있지만, 더 좋은 것을 예비해놓으셨을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훈지 집사

:: 일본에서 온 편지 ::

:: 귀를 기울이세요 ::

단순하고 소박하고 정결하게

“여호와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시118:6). 편이 되는 것과 편을 들어주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 편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자식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과 영적 상태에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 편을 들어주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현재 고난이 아닌 미래 영광을 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많았다고 험악

한 세월은 아닙니다(창47:9).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한탄하자면 끝이 없는 삶이었지만 어려움을 수록 더 철저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만 순종함으로 형들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일에 믿음으로 믿음 편에, 주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일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단순하며 진실된 아름다운 마음으로, 장소로, 관계로 변할 것입니다. 한 가정을 찾아가 집 정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버리지 못하고 쌓아둔 물건들을 전문가가 분

명한 기준을 갖고 대화하며 정리를 도와줍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전문가의 손을 의지할 때 변화가 시작되며, 그 결과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내면의 집은 어떤지요? 복잡한 내 마음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과 예수님이 터치해주실 때 정함과 평강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쌓였던 묵은 영적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총회장님께서도 지나간 일로, 과거의 일로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주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서동경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스스로 성경이 된 사람들

1428년 영국 작은 도시 노리치의 한 광장,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 사람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읊어준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잡아라!” 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을 쫓는 자들이 오자 ‘성경을 외치는 자’들은 달아나기 시작한다. 또 한 광장, 마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성경의 내용을 줄줄 외우기 시작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또 그들을 쫓는 자들에 의해 도망가기 시작한다. 이들은 ‘롤라드(독버섯, 중얼거리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집단이다. 이 당시 교황과 로마 카톨릭은 구원을 돈으로 사는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교회와 사제들만 성경을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존 위클리프가 나타나 “교회의 참된 권위는 교황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스스로의 본분을 깨달아야 한다.”며 1382년 성경을 영어로 완역하여 만민에게 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카톨릭 교회는 영어 성경을 소유하고 있거나 성경 내용을 외치거나 필사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고문하고 화형, 사형을 시켰다. 과거 로마의 네로 황제 시절,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순교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과 같이 스스로 성경이 되어 복음을 외친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성경 말씀을 전했다. 당시 목숨을 걸고 성경을 전한 ‘롤라드’들이 있었기에 그로부터 2세기 후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95개의 반박문을 발표하고,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경’의 정신을 가진 종교개혁이 시작될 수 있었다. 최근 기독교 뮤지컬 ‘더 북: 성경이 된 사람들’을 관람하였다. 이 뮤지컬의 내용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롤라드’들의 이야기였다. 핸드폰만 열면 누구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이 나에게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피와 헌신이 있었던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한글 성경을 지키기 위해 선조들이 목숨 바쳐 돌아가셨다. 많은 사람들의 피 값으로 우리에게 온 성경, 이 성경을 보고 또 보고 귀히 여기자! 송헌혜 생도

Good News

사람이 자신이 죽는 날을 미리 알고 있다면 계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든 돈을 벌고, 언제까지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죽음에 임박해서는 회개하고 죽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돌아가야만 하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나 그 시종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죽은 뒤에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자가 참된 지혜자입니다. 시편 90편의 기록자 모세는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죽는 날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한 점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고, 아름다운 이성을 만나 결혼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정작 중요한 일들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영생 복락의 천국과 영벌의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길 원하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다 끊긴 길이요, 막힌 길입니다. 죽은 뒤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상화평 목사

문제

문제는 의지력이 아니야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이런 고민을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새해마다 목표를 세웠지만 연말이 되면 이룬 게 하나도 없었고, 학창 시절 방학 때마다 새로운 목표를 세웠는데 역시나 이룬 게 없었어요. 작심삼일은커녕 단 하루도 실천해보지 않은 계획이 수도룩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잠만 잔 날도 적지 않아요. 잠을 자는 순간만큼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웃음). 최근에 노트북을 정리하다가 2004년 6월 3일에 썼던 계획표를 발견했는데요. 그해 저는 대학에 입학해 시각디자인을 공부했고 여름방학을 맞아 무려 10개의 계획을 세웠더군요. 1. 일러스트레이터 기초 공부하기 2. 포토샵 기초 공부하기 3. 홈페이지 제작 공부하기 4. 인물 초상화 그리기 5. 크로키 연습하기(만화책 한 권 따라 그리기) 6. 광고 잡지 보기 7. 일주일에 두 권 독서하기 8. 일주일에 한 편 영화 보기 9. 국사 공부하기 10. 영어 기초 공부하기 와우! 이 계획표를 발견하고 얼마나 웃음이 났는지 모릅니다. 여름방학이라고 해 봐야 고작 두 달인데 그 기간 안에 저걸 다 하겠다고? 디자인 프로그램인 일러스트레이터 하나만 공부해도 두 달이 부족한데 포토샵이며, 홈페이지 제작이며, 크로키 연습이며, 영어 공부며, 독서까지 하겠다고요. 게다가 방학 때 하는 아르바이트로 오후 6시 퇴근 후에야 뭐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길 텐데 말이죠.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귀찮아서 마냥 누워있곤 했습니다. 목표도, 욕심도 많은데 행동이 따라주지 못하니 마음이 괴로웠어요. 방학이 끝나도록 밀줄 하나 긋지 못한 계획표를 보면서 의지력이 약해도 너무 약한 자신을 책망하곤 했습니다. 문제는 의지력이 아니라 너무 많은 계획이었는데 말이죠. 돌아보면 저는 늘 방대한 계획 앞에서 시작하기도 전에 질려버렸고 또 지쳤어요. ‘저걸 언제 다 하나...’ 하면서요. 지금의 저라면 10개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할 겁니다. 9개는 과감히 버리고요. 이번 여름방학에는 만화책 한 권을 따라 그려보겠다고 정하면 그것 하나에만 집중할 거예요. 그리고 겨울방학에는 포토샵 기초 공부를 하고요. <원생>의 저자는 의지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력도 피곤함을 느끼고 마치 핸드폰 배터리처럼 수명이 정해져 있다고요. 우리 마음대로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목표를 세우고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지력도 아껴 써야 한다는 걸요. 제 의지력은 반나절이면 방전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나눠 쓰면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표를 최대한 적게 세우는 게 목표가 되었습니다. 1년에 불가능한 도전 딱 하나, 매달 가장 중요한 목표 딱 하나,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 딱 하나, 그것만 남기고 지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날이 별로 없습니다. 작은 의지력으로 적은 목표를 조금씩만 이뤄나갔는데도 어느새 더 나은 자신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의 한 가지 목표는 바로,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저의 작은 의지력을 글쓰기에만 사용하고 있어요. 덕분에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신은혜 dopal0203@naver.com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노량진 교육관

문의: 02-533-9191